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오늘 받은 성지까지,
시간이 가면서
푸르름이 사라지겠지만



새 성지까지를
십자가에 걸던 그 마음은
잊지 않도록 하소서.

[제 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 2~)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 젖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독서]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수난복음] 마르 14,1-15,47<또는 15,1-39>

성가	8시 미사	입당 -	봉헌 515	성체 490 182	파견 117
	11시 미사	입당 -	봉헌 515	성체 490 182	파견 117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수난성지주일(3월 29일)		성삼일(4월 2,3,4일)			예수부활대축일(4월 5일)
	8시미사	교중미사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야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토마스	프락:전진영베로니카	임승원루카	채성일토마스	조선덕레지나	1구역 : 채성일 토마스
제 1 독서	강신희요한	프락:이의천베드로	김휘안토니오	최대연다니엘	1독서:허라우렌시오	1구역 : 최대연 다니엘
제 2 독서	김영선안젤라	프락:문지영골롬바	최수영분다	김영선안젤라	3독서:심승화헬레나	1구역 : 정진희 데레사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5독서:권창모미카엘	독서자
수난복음	최환준분도	프락:박보라울리안나		김휘안토니오	7독서:문지영골롬바	
	정애리스텔라	프락:권창모미카엘		김순희글라라	서간:심태규미카엘	

여느 사람처럼

2009년 4월 28일, 로마에서 얼마 멀지 않은 중세 도시 아퀼라(Aquila)에서는 조용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모을 만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날,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노구를 굽혀 자신의 선임자 중 한 명이었던 첼레스티노 5세(재임: 1294년 8월~12월)의 무덤 위에 보편교회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팔리움(Pallium)을 내려놓았다.

속고의 시간이었을까. 그로부터 5년 후(2013년 2월 11일) 그는 몇 해 전 찾았던 무덤의 주인처럼 실제로 교황직을 사임했다. 그 역시 선임자처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의 부족과 체력적 한계를 사임의 이유로 거론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겸양의 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 년 중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를 오롯이 한자리에 담아놓은 거룩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굳이 몇 해 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된 것은 앞으로 일주일간 보게 될 ‘하느님의 드라마’, 이 줄거리의 핵심을 이보다 탁월하게 응축한 장면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권력은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다. 왕들의 화려한 무덤은 영원할 수 없지만, 영원하길 꿈꿨던 세속권력의 욕망을 보여준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선임자의 겸손한 죽음 앞에 ‘종신(終身)의 힘’을 내려놓는 이의 모습은 수 천 년 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산길을 재촉하여 내려오던 ‘사람된 하느님’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도 세상의 왕들처럼 축복과 환호 속에 권좌에 올랐고 도성에 입성했다. 하지만 왕들의 무덤 같은 허망한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둘 모두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너울 같은 허상 뒤의 참, 곧 우리가 일주일간 목격할 하느님의 지상 드라마가 품고 있는 ‘하느님다운’ 구원을 생생한 모습으로 증언했다.

때문에 교회는 오늘 ‘여느 왕’과 진배없는 도성 입성의 화려함 뒤에 ‘여느 죄인’과 다름없는 수난기를 나란히 펼쳐놓는다. 그것은 몰락한 왕의 불행한 이야기나 겸양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

한 이들을 구하러 가장 가난하게 된, 더 이상 빼앗길 것조차 없는 죄인으로, “여느 사람처럼”(필리 2, 6) 지상으로 내려온 하느님의 구원 드라마다. ‘사람의 아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하느님다운 이름이다.

엄하게 함구를 명령한 수난 전의 거룩한 변모는 영원할 것처럼 권좌에 집착했던 세상의 왕들을 초라하게 만든다. 자신의 진면모를 잠시 드러낸 후 서둘러 사지를 향해 갔던 ‘사람의 아들’은 오히려 세상의 권력이 그토록 집착한 권좌는 저 산 위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황홀경, 금세 사라질 안개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한다.

꿈같은 찰라가 참이 되고, 정작 굳건해 보이던 현실이 안개처럼 찰라가 되는, 힘없음으로 힘을 얻고 무능해서 전능한 하느님의 역전의 섭법이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한 하느님의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가장 빛나는 대목은 무엇보다 “여느 사람처럼” 힘을 뺀 하느님이다. 이 힘을 뺀 하느님으로 가장 거룩한 한 주의 드라마는 하느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느님의 이야기로 변모한다.

통곡이 아니라 위로다. 고통이 아닌 위안이다. 나와 같이, 여느 사람처럼 나의 오늘의 곡절을 함께하는 하느님의 동행, 힘을 뺀 하느님. 이보다 눈물겹고, 두근거리고, 든든하고, 빛나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장동훈 빈첸시오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부활맞이 대청소/감실조배 구역반별 일정

구역	부활절맞이 성당대청소 담당구역 2015년 3월 29일	
1	오클랜드반	교육관 1, 2 층
	실버반	성체조배실 및 제 2회의실
	알라메다반	대건회관 정원 및 제 1회의실
	샌리엔드로반	야외 성모상과 성 김대건 동상 주변 정원
2	프리몬트반	친교실 및 무대
	유니온반	친교실 화장실(남,녀)
	헤이워드반	제의실 및 통로
	캐스트로밸리반	주차장 (정문 및 후문)
3	리치몬드반	교육관 정문 밖 주변과 차고 쪽
	버클리, 알바니반	유아실 2군데 및 통로
4	월넛크릭,콩코드,플레즌힐반	성당 내부 1, 2 층
	라모린다, 라스모아반	교육관 정원
뜨락구역	뜨락회	친교실 밖 통로 및 주방

**** 감실조배 장소는 대건회관 성체조배실입니다.

성 목요일 감실조배 반(구역)별 일정표 (4/2 - 4/3)			
날짜	시간	담당 (반)	소속구역
4월 2일 성주간 목요일	10 - 11 PM	프리몬트반	2
	11PM-12PM	유니온반	2
4월 3일 주님수난 성금요일	12 - 1 AM	뜨락회	뜨락구역
	1 - 2 AM	리치몬드반	3
	2 - 3 AM	버클리, 알바니반	3
	3 - 4 AM	오클랜드반	1
	4 - 5 AM	알라메다반	1
	5-6 AM	캐스트로밸리반	2
	6 - 7 AM	헤이워드반	2
	7 - 8 AM	라모린다, 라스모아반	4
	8 - 9 AM	월넛크릭반, 콩코드반, 플레즌힐반	4
	9 - 10 AM	실버반	1
10 - 11 AM	샌리엔드로반	1	

말씀의 향기

어머니께 청하오니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일치’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외국 여행 중에 주일 미사를 참례할 때마다 느끼는 감동에는 또 다른 ‘일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일치의 감동’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도 안 통하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마치 내 집처럼 들어가 나의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 가량을 보내고 나오는 그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알렐루야, 아알렐루야아, 알렐렐루우야’를 노래하고 나면 신기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들과 제가 그 오랫동안 같은 노래를 부르며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치의 감동’이 만만치 않게 강렬합니다.

이 ‘일치의 감동’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넘는 그 오래된 기도문을 우리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삼일의 첫날 목요일의 ‘주님 만찬 저녁미사’에서 영성체 후에 성체를 옮겨 모시는 행렬 때 ‘입을 열어 구세주의’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라틴어로 ‘팡제 링구아’ (Pange lingua)라고 하며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은 찬미가이므로 약 800년 된 노래입니다. 이 선율을 바탕으로 후대 작곡가들은 여러 아름다운 성가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금요일에 바치는 ‘주님 수난 예식’ 때 사제가 “보라 십자 나무”라고 선창하는 ‘에체 리눔 크루치스’ (Ecce lignum crucis)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최소한 1000년은 넘는 성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은 성가가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저는 ‘일치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오래전 저 멀리 유럽의 성당에서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14처를 옮길 때마다

노래하는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는 그 가사와 선율이 최소한 700년이 넘는 것입니다.

가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9월 15일) 때 노래하는 성가 ‘스타바트 마테르’ (Stabat Mater)이며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초기 고전주의 이탈리아 작곡가인 페르골레지의 명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예수 높이달린 십자곁에 성모서서 비통하게 우시네”로 시작하는 이 부속가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가가 성금요일 일주일 전 금요일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 때 세계 곳곳의 많은 신자들이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예수님을 보고 비통해하시는 성모님의 마음으로 길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또 다른 ‘일치의 감동’ 후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매우 특별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허영한 요셉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

성경산책

자유분방한 필립보 사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필립보는 열두 사도 중 한 분이
십니다. 갈릴래아 벳사이다 출신으로 원래 세례자 요한
의 제자였으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필립보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깊은 감동을 받아 나타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엘의 반
응이 영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필립보는 어떻게 반응했
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43-51

필립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식량 공급의 책임
을 맡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영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에서도 예
수님은 급식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필립보에게 문의했
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필립보에게 “이 사람들
을 먹일만한 빵을 어디서 사다가 먹이겠느냐?” 고 질문
하셨습니다. 필립보는 바로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하
여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필립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6, 1-15/마태14, 13-21/마르6,30-44/루카9, 10-17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필립보는 “주
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
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수님께서 “필립보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안 있었는데 너는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4, 1-14

필립보는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어서 의문을 가지
면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허심탄회하게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였
습니다.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따지고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립보는 그것을 넘어서
는 신비가 있음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
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늘 저지르는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부지런히 탐구하여 자신이 찾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
다. 그는 믿음에 충실한 사도로 이집트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로마의 열두 사
도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허영엽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
나를 본 사람은 곧 ()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를 뵈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요한14,9)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3월22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해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신마태오(현규)	찬미성가대
	연	신마태오(현규)	성루카/우솔라
	연	이스테파노(상준)	뜨락회
	연	김클레멘스(진철)	노소피아
	연	김클레멘스(진철)	찬미성가대
	연	이마티아(호철)	이카타리나(상주)
	연	김중화	정대레사(해경)
	연	이성원	정대레사(해경)
	생	꾸리아활성화	꾸리아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서데레사(춘애)	성우솔라
	생	김유릿다(정희)	성루카/우솔라
	생	전수산나(문자)	박세레나(동신)
	생	김카타리나	박세레나(동신)
3월3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4월 1일 수	생	서데레사(춘애)	영원한도움의어머니
	생	전수산나(문자)	익명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0	203	30	313
헌 금	\$524	\$1,118	\$28	\$1,670

< 교무금 > \$2,725

최대연(1-3) 이세호(1-3) 권영현(3-4) 정창희(3)
 양인심(3-4) 김형준(3-4) 원광희(1-4) 송성숙(3)
 부건화(1-4) 박영실(3-4) 지영남(1-4) 이인학(1-3)
 신점숙(1-12)

< 성소후원금 > \$90

정창희(3) 김형준(3-4) 박영실(3-4)

< Bishop's Appeal >

박영실(3-4)

< 감사헌금 > -

< 부활초/꽃봉헌 >

조선덕 \$100 전문자 \$100

~~~~ 오늘 간식은 주봉진 요셉/마리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파스카 성삼일 전례

- \* 4월 2일(목) : 주님 만찬미사 저녁 8시
  - \*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 \* 수난감실 조배(주보 3면 참조)
- \*\*감실조배 장소는 대건외관 성체조배실입니다.\*\***
- \* 4월 3일(금) : 주님 수난예식 저녁 8시
  - \* 성씨복구를 위한 헌금
  - \*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 \* 4월 4일(토) : 부활성야 미사 저녁 8시
  - \* 부활성야 헌금
- \* 4월 5일(일) : 주님부활 대축일미사 오전11시
  - \* 오전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 각 구역별 음식 바자회

◆ 꾸리아월례회 : 4월 4일(토) 아침 8시 반 106호실

◆ 환자봉성체 : 4월 10일(금) 아침미사 후부터

◆ 오늘 부활맞이대청소가 구역별로 있습니다.  
(주보 3면 참조)

◆ Rice Bowl 봉헌 : 성당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 구역반장회의 : 오늘 청소 후 106호실
- \* 사목회의 : 오늘 청소 후 107호실
- \* 본당 ME 모임 : 오늘 청소 후 202호실

◆ 북가주 26차 ME 첫주말 초대

일시 : 2015년 4월 10일 - 4월 12일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Menlo Park  
 참가비 : 부부당 \$300  
 연락처 : 한치용 요셉 415-810-3175  
 한현자 헬레나 925-285-2038

**3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클랜드     | 3월29일(일)5시 | 채성일토마스덕  |
| 2  | 프리몬트 S/N | 3월29일(일)6시 | 신정은미카엘라덕 |
|    | 유니온      | 3월29일(일)6시 | 이상주카타리나덕 |

◆ 서중부 여성 제10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대상 : 견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여성  
 비용 : \$250  
 신청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성물방 Sale

사순시기 동안 도서/성물을 20% Sale 합니다.(초 제외)  
 \* 신간서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 Brown Bag 봉사 활동에 도움 주신 분

권영현 \$100 전완수 \$100 김광석 \$40 김세록 \$100

◆ 지난 3월 26일 주교좌성당 성유축성미사에 본당의 성가대와 풍물회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

- 3월 29일, 4월 5일 : 주일학교 방학
- 3월 29일, 4월 5일 : 합동미사

**안국학교 소식**

- 4월 4일 : 부활절 방학
- 4월 11일 : 북가주협의회주최 구연동화대회
- 4월 18일 : 미술특강
- 4월 25일 : 한국어능력시험